



# 메가이더(MEGA)

주요내용설명서(국문백서)

Korean White Paper

2026년 4월 30일

## Disclaimer

본 번역본은 2026년 4월 30일 기준의 메가이더(MegaETH)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관련 내용 위주로 번역되었습니다.

빗썸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의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본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문의 내용이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측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번역본은 오픈 커뮤니티의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프로젝트 소개

### 메가이더(MegaETH), 최초의 리얼타임<sup>1</sup> 블록체인

메가이더는 가상자산 시장 최초로 웹2.0 수준의 실시간 성능을 구현한 EVM(이더리움 가상 머신)<sup>2</sup> 호환 블록체인입니다. 메가이더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그동안 블록체인이 달성하지 못했던 기존 클라우드 서버급의 퍼포먼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메가이더의 강점은 압도적인 트랜잭션<sup>3</sup> 처리 속도와 풍부한 연산 용량입니다. 무엇보다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1,000분의 1초(밀리초) 단위의 즉각적인 응답 속도를 유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덕분에 개발자들은 그동안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메가이더를 통해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왜 굳이 새로운 블록체인이 또 필요할까요?

블록체인 개발 프레임워크가 발전하면서 체인을 만드는 진입 장벽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최근 수많은 신규 체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엘투비트<sup>4</sup> 데이터를 보면 현재 레이어2 생태계에만 12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인의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블록체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확장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별 체인이 가진 성능의 한계가 그 위에서 작동하는 디앱<sup>5</sup>의 성능에까지 제약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아래 표는 현재 주요 EVM 체인들이 보여주는 초당 가스<sup>6</sup> 처리량과 블록 생성 시간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

<sup>1</sup> Real-time

<sup>2</sup> Ethereum virtual machine

<sup>3</sup> Transaction

<sup>4</sup> L2Beat

<sup>5</sup> DApp

<sup>6</sup> Gas

EVM 체인 종류	초당 가스 처리량 (Gas/s)	블록당 목표 가스량 (공급)	블록 생성 시간
옵비앤비 <sup>7</sup>	100.0 mg/s	100M	1.0s
비앤비 스마트 체인	46.6 mg/s	140M	3.0s
폴리곤	7.5 mg/s	15M	2.0s
아발란체 C체인	7.5 mg/s	15M	2.0s
아비트럼 원	7.0 mg/s	1.75M	0.25s
베이스 <sup>8</sup>	5.0 mg/s	15M	2.0s
옵티미즘 메인넷	2.5 mg/s	5M	2.0s
컨두잇 <sup>9</sup>	2.5 mg/s	5M	2.0s
이더리움 레이어1	1.25 mg/s	15M	12.0s
*대다수 컨두잇 체인의 평균적인 수치를 반영함			

[표: 2024년 주요 EVM 체인별 가스 처리 효율 비교 (출처: Paradigm)]

### 기존 EVM 체인의 3가지 치명적 한계

앞선 표를 분석해보면 현재 EVM 체인들이 직면한 한계는 명확합니다. **첫째,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opBNB가 초당 1억 가스(100 MGas/s)를 처리하며 동종 체인 중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신 웹2.0 서버의 성능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자면, 100 MGas/s라는 속도는 유니스왑 거래로 치면 고작 650건, 단순 토큰 전송으로 쳐도 초당 3,700건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반면, 최신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은 TPC-C<sup>10</sup> 벤치마크 테스트(데이터베이스 성능 측정의 국제 표준) 기준, 이미 초당 1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빈약한 연산 능력 때문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피보나치 수열 계산을 생각해 봅시다.  $n=10^8$  수준의 계산을 수행하려면 약 55억 가스가 소모되는데, 현재 가장 빠르다는 옵비앤비 체인 전체를 다 써도 계산하는

<sup>7</sup> opBNB

<sup>8</sup> Base

<sup>9</sup> Conduit

<sup>10</sup> 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

데만 55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같은 작업을 C언어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단 0.03초(30ms) 만에 끝납니다. CPU(중앙 처리 장치)<sup>11</sup> 코어 하나만 써도 블록체인보다 1,833배나 빠른 셈입니다. 만약 멀티코어 프로세싱<sup>12</sup>까지 활용해 연산 능력을 여기서 100배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블록체인이 있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셋째, 응답 속도가 느려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하는 앱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아비트럼 원을 제외하면, 표에 있는 대부분의 체인은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1초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자율 세계(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의 규칙에 따라 작동하고 발전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세계)<sup>13</sup> 같은 정교한 온체인 디앱들이 실시간 전투나 물리 법칙을 시뮬레이션하려면 블록 생성 간격이 적어도 0.1초(100ms)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0.01초(10ms) 안에 주문을 넣거나 취소할 수 없다면 온체인상의 고빈도 매매(HFT)<sup>14</sup> 시스템 구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해결책: 진정한 리얼타임 블록체인의 시대

다행히 이러한 한계들은 EVM 체인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아닙니다. 이제 비약적인 기술적 진보를 통해 진정한 리얼타임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리얼타임 블록체인이란 ‘트랜잭션이 도달하는 즉시 이를 처리하고 그 업데이트 결과를 네트워크에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현실화되려면 사용자가 폭주하는 피크 타임에도 이러한 실시간 경험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압도적인 트랜잭션 처리량과 방대한 연산 능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

## 비즈니스 모델

### 노드 전문화(Node Specialization), 성능 혁신을 위한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학계와 업계가 매달려 온 난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현존하는 최신 기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뛰어난 성능 향상을 ‘갑자기’ 이뤄낼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

<sup>11</sup> Central processing unit

<sup>12</sup> Multicore processing

<sup>13</sup> Autonomous world

<sup>14</sup> High-frequency trading

보안과 검열 저항성<sup>15</sup>이라는 핵심 기능을 이더리움이나 아이겐DA<sup>16</sup> 같은 베이스 레이어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극한의 성능 최적화를 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설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성능과 탈중앙화의 딜레마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현재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블록체인은 크게 ‘합의’와 ‘실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 합의 단계에서는 사용자 트랜잭션의 순서를 확정 짓고, 실행 단계에서는 확정된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처리하여 블록체인의 상태<sup>17</sup>를 업데이트합니다.

대부분의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노드가 별다른 역할 구분 없이 똑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모든 노드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트랜잭션 실행도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성능과 탈중앙화 사이의 딜레마를 낳습니다. 결국 모든 레이어1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보안과 검열 저항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의 마지노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풀 노드<sup>18</sup> (전체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컴퓨터) 운영을 위한 적정 하드웨어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각 레이어1 블록체인들은 성능과 탈중앙화라는 스펙트럼 사이에서 저마다 다른 균형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래 표는 주요 레이어1 블록체인들이 권장하는 하드웨어 사양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더리움	2 cores	4-8 GB	25 Mbps	SSD <sup>19</sup>
솔라나	12 cores	256 GB	1-10 Gbps	SSD
엠포스	32 cores	64 GB	1 Gbps	SSD

<sup>15</sup> Censorship resistance

<sup>16</sup> EigenDA

<sup>17</sup> State

<sup>18</sup> Full node

<sup>19</sup> Solid state drive

## 패러다임의 전환: 이질적 아키텍처

반면, 레이어2는 블록체인의 설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레이어2 환경에서는 더 이상 모든 노드가千篇일률적으로 똑같은 고사양 하드웨어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어2 블록체인은 태생적으로 비균질적인<sup>20</sup>, 즉 노드마다 하드웨어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각 노드가 저마다 가장 잘하는 역할에 특화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레이어2에서는 시퀀서<sup>21</sup>라는 특수 노드가 트랜잭션 순서를 정리하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또한 zk롤업<sup>22</sup>의 증명자<sup>23</sup> 노드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sup>24</sup>나 FPGA(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sup>25</sup> 같은 특수 가속기(하드웨어)를 활용해 증명 생성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메가이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레플리카 노드(Replica Node)’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노드 전문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풀 노드와 달리 트랜잭션 실행 과정을 아예 생략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 메가이더 생태계를 이끄는 4가지 핵심 역할

결과적으로 메가이더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문화된 역할로 구성됩니다.

1. **시퀀서:** 사용자 트랜잭션의 순서를 정하고 실행하는 총책임자입니다. 메가이더는 한 번에 단 하나의 활성 시퀀서만 가동합니다. 덕분에 평상시에는 노드끼리 합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합의 오버헤드<sup>26</sup>)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레플리카 노드:** 피어 투 피어<sup>27</sup> 네트워크를 통해 시퀀서로부터 상태 변경값<sup>28</sup>만을 전달받아 자신의 로컬 상태에 곧바로 반영합니다. 주목할 점은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증명자가 제공하는 증명을 통해 블록이 올바른지 간접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검증합니다.
3. **풀 노드:** 기존 방식 그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트랜잭션을 재실행하여 블록을 검증합니다. 시퀀서의 엄청난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고사양 하드웨어가 필요하지만 브리지 운영자나 마켓 메이커<sup>29</sup> 같은 파워 유저들이 트랜잭션 완결성<sup>30</sup>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

<sup>20</sup> Heterogeneous

<sup>21</sup> Sequencer

<sup>22</sup> Zero knowledge rollup

<sup>23</sup> Prover

<sup>24</sup> Graphics processing unit

<sup>25</sup>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sup>26</sup> Consensus overhead

<sup>27</sup> Peer to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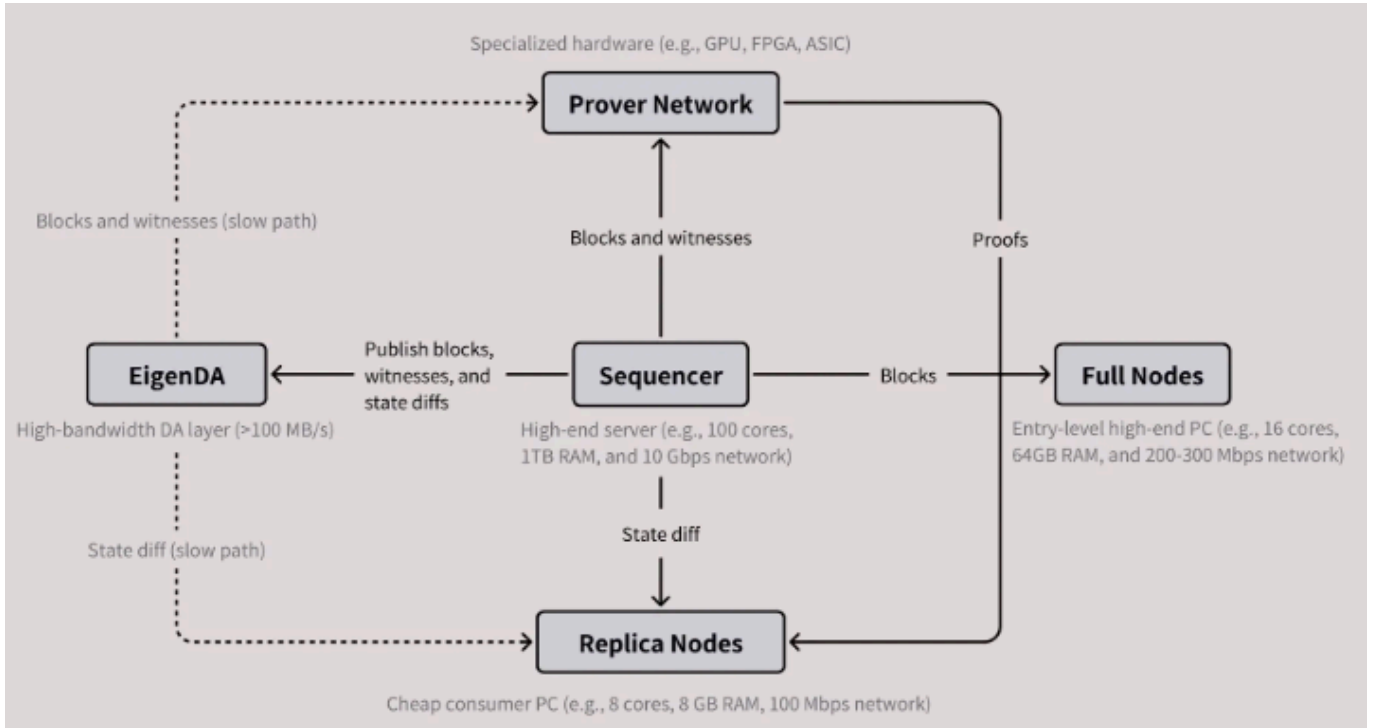
<sup>28</sup> State diffs

<sup>29</sup> Market maker

<sup>30</sup> Finality

4. **증명자:** 상태 비저장 검증<sup>31</sup> 기술을 활용하여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비동기적으로<sup>32</sup> 블록을 검증합니다.

아래 도표는 메가이더의 기본 아키텍처와 주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아이겐DA는 아이겐레이어 기반의 외부 구성 요소(아이겐클라우드 제공)입니다.



[메가이더 주요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 노드 전문화의 이점: 하드웨어 사양의 최적화

노드 전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노드의 역할에 맞춰 하드웨어 사양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실행이라는 고부하 작업을 담당하는 시퀀서 노드는 성능 극대화를 위해 고사양 서버에서 구동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레플리카 노드는 증명 검증에 드는 연산 비용이 매우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또한, 풀 노드는 여전히 트랜잭션을 직접 실행해야 하지만 시퀀서가 제공하는 보조 데이터를 활용해 재실행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엔드게임<sup>33</sup>’에서 강조했듯, 블록 ‘생성’은 중앙화되더라도 ‘검증’만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신뢰<sup>34</sup> 방식의 강력한 탈중앙화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sup>31</sup> Stateless validation

<sup>32</sup> Asynchronously

<sup>33</sup> Endgame

<sup>34</sup> Trustless

아래 표는 메가이더의 각 노드 유형별 예상 하드웨어 사양을 정리한 것입니다.

	CPU	메모리	네트워크 속도	스토리지	VM <sup>35</sup> 모델 예시 (시간당 비용)
시퀀서	100 코어	1-4 TB	10 Gbps	SSD	AWS r6a.48xlarge (\$10)
증명자(OP <sup>36</sup> )	1 코어	0.5 GB	저속	없음	AWS t4g.nano (\$0.004)
레플리카 노드	4~8 코어	16 GB	100 Mbps	SSD	AWS Im4gn.xlarge (\$0.4)
풀 노드	16 코어	64 GB	200 Mbps	SSD	AWS Im4gn.4xlarge (\$1.6)

참고로, 영지식 증명자 노드는 사용하는 증명 기술 스택이나 솔루션 제공 업체에 따라 하드웨어 사양이 천차만별이기에 이번 비교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각 가상 서버 인스턴스<sup>37</sup>의 시간당 비용은 instance-pricing.com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드 전문화가 가져온 혁신적인 결과입니다. 5~10배 더 강력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평균적인 솔라나 검증인보다 20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성능 장비를 시퀀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풀 노드의 유지 비용은 이더리움 레이어1 노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리얼타임 블록체인의 공학적 설계

노드 전문화라는 개념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메가이더의 비결은 그저 강력한 스펙을 가진 중앙화 시퀀서 하나를 둔 것에 불과한가?” 정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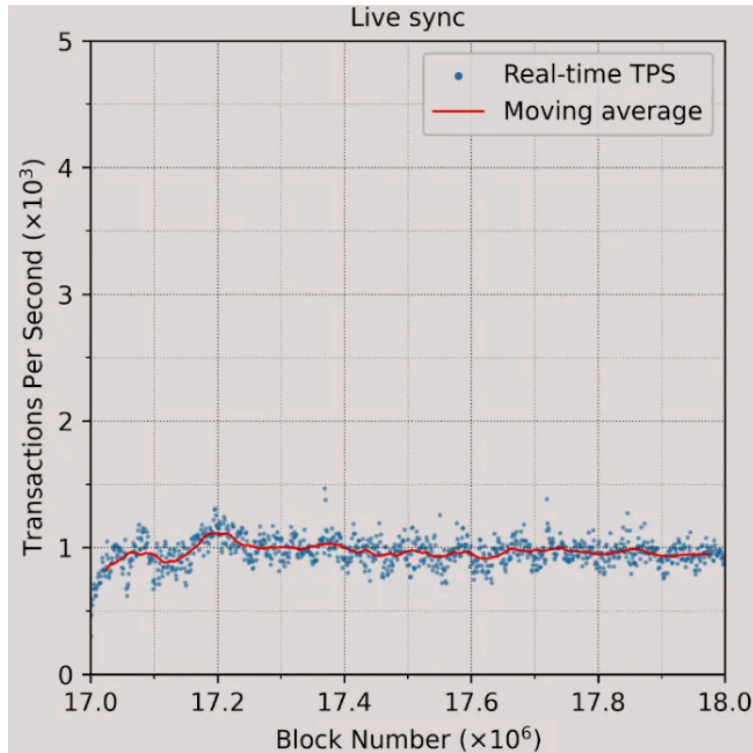
물론 메가이더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 중앙화된 고성능 서버에 빔대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이루어진 방대한 연구와 엔지니어링의 복잡성을 크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얼타임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시중의 평범한 이더리움 실행 클라이언트를 가져다가 시퀀서의 하드웨어 사양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sup>35</sup> Virtual machine

<sup>36</sup> Optimistic

<sup>37</sup> Instance

일례로 메가이더가 진행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512GB RAM을 장착한 초고사양 서버라 할지라도 레스<sup>38</sup> 클라이언트로 최신 이더리움 블록을 실시간 동기화해 보았으나 처리 속도는 고작 1,000 TPS<sup>39</sup>(가스 처리량 기준 약 100 MGas/s)에 그쳤습니다. 이 실험에서 성능의 발목을 잡은 원인(병목 구간)은 바로 각 블록마다 머클 패트리샤 트리(MPT)<sup>40</sup>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였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은 트랜잭션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보다 연산 비용이 10배 가까이 더 많이 듭니다.



[레스의 실시간 동기화 성능]

요약하자면, 노드 전문화가 비약적인 성능 향상의 기회를 열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극한으로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실제로 설계하고 구현해내는 것은 여전히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sup>38</sup> Reth (Rust Ethereum)

<sup>39</sup> Transaction per second,

<sup>40</sup> Merkle Patricia trie

## 메가이더의 설계 철학

블록체인은 수많은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특정 병목 구간 하나를 따로 떼어내 해결한다고 해서 전체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유는 그 구간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 원인이 아니었거나 병목 현상이 단순히 다른 구성 요소로 옮겨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가 특정 부분의 최적화에만 매몰되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실험실 환경<sup>41</sup>에서는 놀라운 속도 향상을 보여주지 몰라도 막상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엔드 투 엔드(시스템 전체 구간)<sup>42</sup>,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메가이더는 초기 연구 개발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설계 철학을 견지해 왔습니다.

1. **“측정하고, 구축한다”** 메가이더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인 성능 측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발견된 모든 병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설계합니다.
2. **“하드웨어의 한계에 도전한다”**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고치는 ‘점진적 개선’보다는 이론적인 성능 최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백지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클린 슬레이트<sup>43</sup>) 방식을 택했습니다. 메가이더의 목표는 가상자산 인프라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업계가 더 이상 속도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대중화를 가로막는 다른 도전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수십억 사용자를 위한 리얼타임 경험의 실현

리얼타임 블록체인은 기존 웹2.0 서버와 블록체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 것입니다. 메가이더와 함께라면 사용자는 전례 없는 실시간 성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개발자는 성능의 제약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넘어 드디어 웹2.0 수준의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온체인에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

<sup>41</sup> Microbenchmarks

<sup>42</sup> End-to-End

<sup>43</sup> Clean-slate

---

## 토크노믹스

MEGA는 메가이더 네트워크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시퀀서 로테이션 (Sequencer Rotation)
- 근접성 마켓 (Proximity Markets)

이 두 메커니즘의 결합을 통해 사용자는 최소한의 엔드 투 엔드 지연 시간을 누릴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코로케이션(초근접 호스팅)<sup>44</sup> 가치는 MEGA 보유자에게 환원됩니다.

### 시퀀서 로테이션

메가이더는 한 번에 하나의 활성 시퀀서만 운영합니다. 이 시퀀서는 세계 경제 활동 시간대의 흐름에 따라 도쿄 → 네덜란드 → 북버지니아 → 로스앤젤레스 순으로 전 세계를 순환합니다. 각 시간대 마다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운영자들은 MEGA를 스테이킹하여 경쟁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스테이킹 규모, 과거 운영 성과,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운영 중 결함이 발생할 경우 스테이킹된 지분은 삭감<sup>45</sup>됩니다.

### 기대 효과

- 사용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 맞춰 엔드 투 엔드 지연 시간을 최적화합니다.
- 장애 발생 시, 순위가 매겨진 대기자가 즉시 권한을 인계받습니다.
- 24시간 내내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됩니다.

### 근접성 마켓

시퀀서와 가장 가까운 물리적 서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시장입니다. 마켓 메이커와 애플리케이션들은 지연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주문이 실시간으로 제출 및 확정되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처리 역량은 결과적으로 디파이 시장에 더 촘촘한 스프레드<sup>46</sup>와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

<sup>44</sup> Colocation

<sup>45</sup> Slashing

<sup>46</sup>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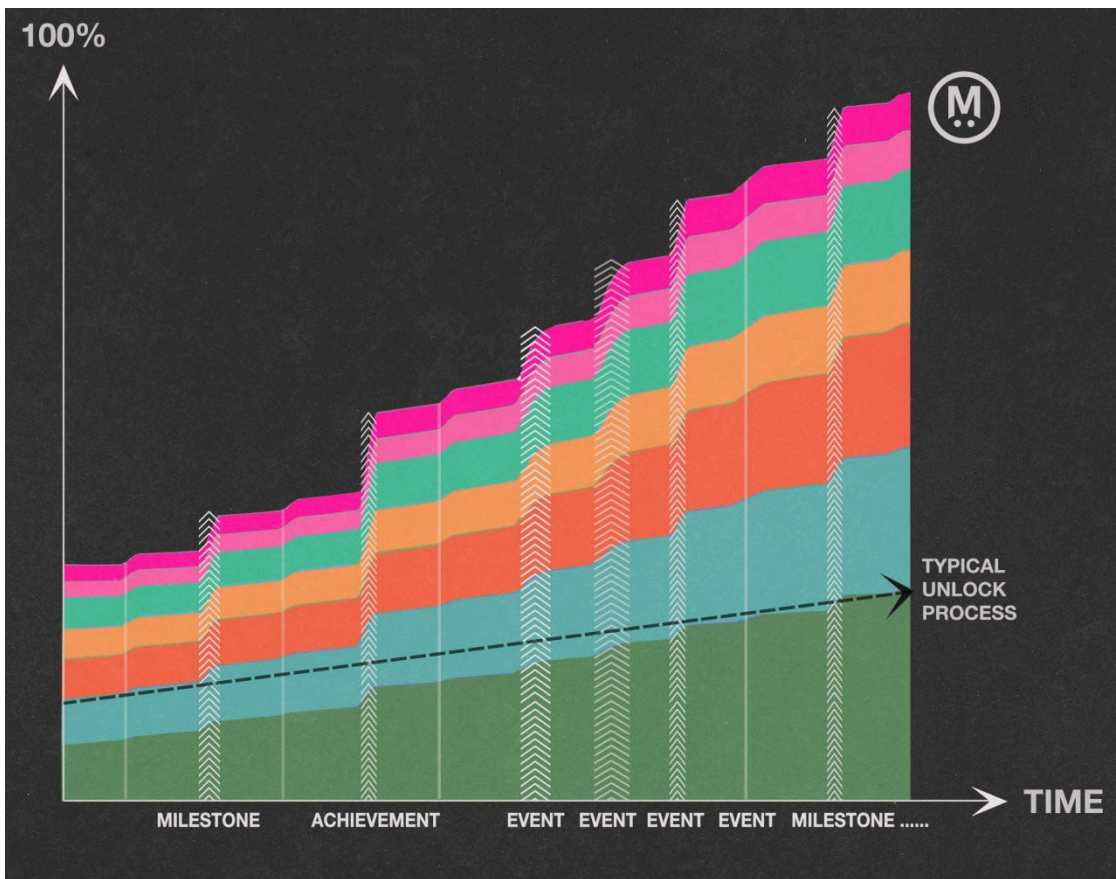
## 기대 효과

- 슬롯(Seats)을 확보하려면 MEGA를 락업<sup>47</sup>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 수요에 따라 슬롯이 동적으로 할당되며, 이 모든 과정은 토큰화되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온체인 인덱서가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전송하여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코로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MEGA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 MEGA KPI<sup>48</sup> 보상 시스템 도입

KPI 보상 시스템은 토큰 발행<sup>49</sup>의 기준을 ‘날짜’가 아닌 ‘데이터’에 둡니다. 메가이더는 네트워크의 성능 및 도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MEGA 스테이커들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기존 방식 vs. KPI 기반 성과 연동형 언락 모델]

<sup>47</sup> Lockup

<sup>48</sup> Key performance indicator

<sup>49</sup> E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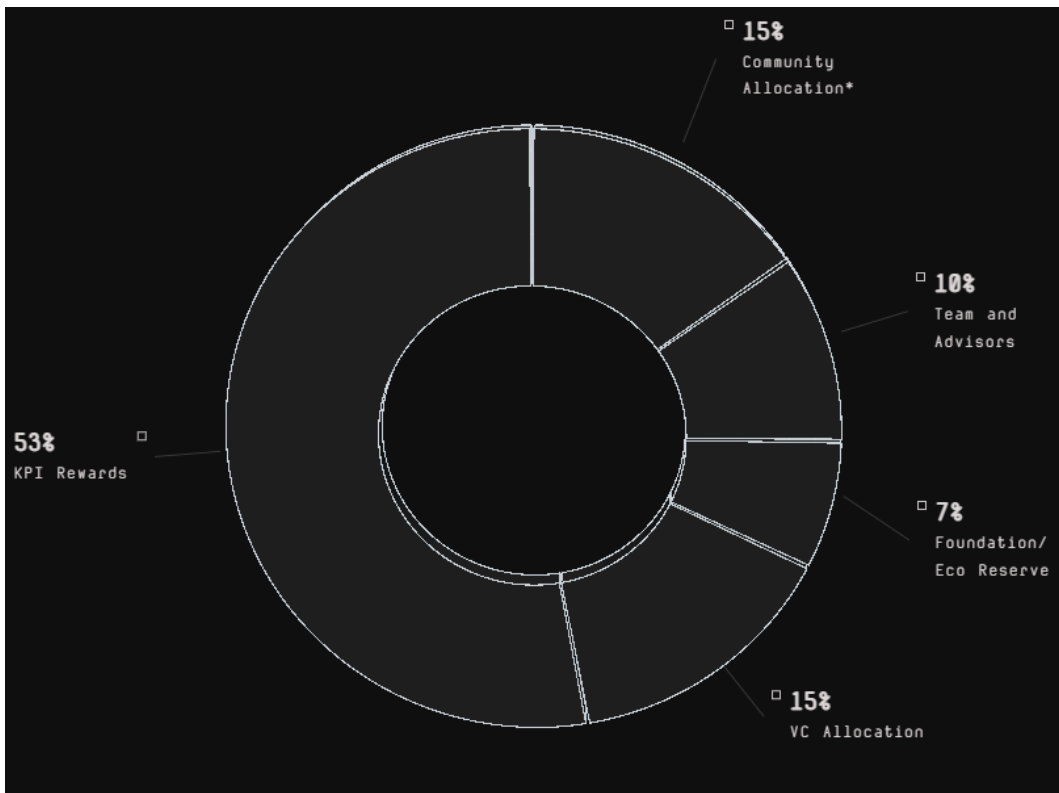
기존 네트워크들은 타이머가 작동하듯 시간에 따라 토큰을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하지만 메가이더는 생태계의 성장과 성숙도에 맞춰 토큰을 발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토큰이 언락<sup>50</sup>되며, 생태계가 주요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만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총발행량의 절반 이상이 KPI 스테이킹을 위해 할당되었습니다.

#### 참여 조건

- MEGA 스테이커만 보상 대상입니다.
- 스테이킹 기간이 보상 규모에 영향을 줍니다. (최소 10일 ~ 최대 30일 반영)
- 아직 베스팅<sup>51</sup>되지 않은 토큰도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단, 발생한 보상에도 원본 토큰과 동일한 락업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토큰 분배 내역]

<sup>50</sup> Unlock

<sup>51</sup> Vesting

\* 커뮤니티 할당분에는 에코<sup>52</sup>, 소나<sup>53</sup>, 플러플(Fluffle) 및 메인넷 캠페인에 대한 할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KYC(본인 인증)<sup>54</sup> 미통과, 시빌 공격(다중 계정 부정 사용)<sup>55</sup>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판매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은 토큰은 재단으로 귀속되며,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치상의 차이는 반올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빌 공격 및 KYC 관련 이슈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 초기 핵심 KPI 분야

- 생태계 성장
- 기술적 성능
- 메가이더 탈중앙화
- 이더리움 탈중앙화

각 카테고리에서는 객관적인 온체인 지표를 기준으로 토큰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KPI 분야에서 목표가 달성되어 커뮤니티 스테이커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면 참여자들은 새로 받은 토큰을 다시 스테이킹하여 지분을 복리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량, 탈중앙화,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성장을 이끈 기여자들에게 더 큰 수익이 돌아갑니다.

---

<sup>52</sup> Echo

<sup>53</sup> SONAR

<sup>54</sup> Know your customer

<sup>55</sup> Sybil attack

---

## 로드맵

메가이더는 별도 로드맵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사업 현황에 대한 공지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megaeth.com/>
- 블로그 <https://www.megaeth.com/blog-news>
- X(구 트위터) <https://x.com/megaeth>

\*상기 링크는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한 링크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